

중국대외정책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탐색

정다훈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 국문요약 |

중국에 대한 연구가 비교정치학의 분석사례에서 '중국학'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중국 대외정책 연구에 대한 관심도 점차 확장되었다. 그러나 중국 외교행위에 대한 현상과 정책적 분석이 활발해지는 것에 비해 중국 외교학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국내 학계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중국학 연구가 쏟아지는 연구수요에 따라 현상분석과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나머지보다 근원적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방법론적 담론과 그 논의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기존 중국 대외정책 연구의 접근방법(방법론)을 살펴보고, 현재 변화된 시대적 프레임과 국제관계학 연구에서 중국대외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중국학 연구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적용을 검토해본다.

주제어 |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과지도, 인지지도

I. 서론

오늘날 현대 중국연구는 주변국가나 지역학연구자들만의 ‘특수한’ 연구대상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제 중국연구는 학계나 정계를 막론하고 모든 영역의 주요 관심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중국학 연구는 중국의 발전과 함께 비교정치학의 한 사례에서, 중국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중국학 모델론의 연구와 함께 촉발되었으며(박병석 2018; 이경희 2011; 이정구 2013; 장윤미 2011; 전성홍 2008), 이에 따른 다양한 담론과 분석이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에서 지역학 연구로 진행되었다. 비교정치학의 하위 분야로서의 ‘중국’이 ‘중국학’이라는 담론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중국 대외정책 연구의 비중도 점차 확장되었다. 그러나 중국 외교행위와 현상에 대한 담론 분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풍부한 연구성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학계에서는 대외정책 일반에 대한 연구방법론 분석(은용수 2013; 조동준 2007)을 제외하고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과 관련한 연구로는 중국정치 연구방법론 전반에 대한 이론적 평가와 점검을 다룬 논문(정재호 외 2005; 차창훈 2003)과 중국 대외정책 접근방법에 대한 논문(김옥준 2010)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 시진핑 집권 이전 시기에 발행된 논문으로 시진핑 집권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중국학연구의 핵심이 되는 저널에서 중국 외교학 방법론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중국학 연구가 쏟아지는 연구수요에 따라 현상분석과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나머지보다 근원적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방법론적 담론과 그 논의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기존 중국 대외정책 연구의 접근방법(방법론)을 살펴보고, 현재 변화된 시대적 프레임과 국제관계학 연구에서 중국대외정책이 나아갈 방향

을 모색해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중국학 연구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적용을 검토해본다.

II. 중국대외정책 연구방법론

중국학자들의 중국외교에 대한 분석은 주로 ‘외교사’적인 영역에서 ‘역사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반면, 중국대외정책의 연구방법론은 주로 서방 학자들을 중심으로 확장되어왔다. 물론 근래에는 서방의 연구업적과 방법의 영향을 받아 각종 다양한 연구방법이 선택되어 중국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고 있지만(王鳴鳴 2003) 중국 대외정책의 ‘방법론’적 다양성이 서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중국대외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저술들과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중국대외정책을 정리하면 크게 접근방법과 시대별 분류가 가능하다. 아래는 지금까지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에 대한 성과를 접근방법으로 분류한 것이다.

1. 거시적 접근방법

국제환경과 체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접근방법¹⁾은 중국의 대외정책이 국제체제의 구조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Friedman 1979; Ng-Quinn 1974; Pollack 1984)²⁾. 구조적 현실주의 접근 방식을 가진 이 방법은

-
- 1) 본문에서 분류한 거시적 접근방법은 국제체제적/구조적 요인의 강조를, 미시적 접근은 중국 내부적 특수성/개인 중심의 접근을 설명한 용어이다. 국제적-국내적 차원의 분석 방법을 주제로 표기하지 않고 거시와 미시적 접근이라고 표기한 것은 미시-거시적 차원의 연계접근과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접근방법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 2) 이러한 틀에서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Michael Ng-Quinn, John Gittings, Jonathan D. Pollack, Edward Friedman 등이 있다.

국제체제 차원의 요인을 중국대외정책연구에 중요한 변수로 보기 때문에 중국대외정책의 행위 역시 주어진 국제체제의 적응과 변화, 대응과정으로 인식한다. 구조적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이와 같은 방법은 국가이익 차원의 접근방법과 전략적 삼각관계 차원의 분석 등이 있다.

국가이익 차원의 접근방법은 중국 역시 다른 서방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적대세력이나 동맹, 우방세력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고려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결정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접근방법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중국내부의 ‘특수성’보다는 ‘일반적’인 국제관계 연구의 틀 안에서 중국을 하나의 사례에 분석한다. 이 방법론은 중국대외정책결정을 역사, 이데올로기, 정치문화라는 특수한 조건 안에서 중국의 정책결정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정이라는 틀에서 바라본다. 이 접근방법은 근본적으로 중국대외정책을 정책학의 하위분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만이 가지는 특수성보다는 정책학의 보편전제-‘합리적 차원을 전제한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다수의 서양학자들과 중국학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Gurtov and Hwang 1980; Yahuda 1978; Ness 1970; Robinson 1972; Whiting 1960)³⁾. 이 방법론은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갇혀있던 중국 대외정책의 연구를 탈피한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중국대외정책연구의 객관성과 학술성을 제고시킨 만큼 역설적으로 중국 대외정책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의거한 최적의 대안을 결정한다는 국익이라는 결정기준은 이미 정책학의 오랜 논쟁인 합리성 모델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방법론은 변화하는 중국 내부의 조직, 기구, 정치세력들 간의 견해 차이

3) 대표적인 서양학자로는 Allen Whiting, Donald Zagoria, Thomas W. Robinson, Peter Van Ness, Michael Yahuda, Melvin Gurtov, Byong-Moo Hwang 등이 있으며 중국학자로는 왕이조우, 자오취엔성의 연구가 유명하다.

와 지도자들 간의 ‘차이’를 간과한다는 약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략적 삼각관계라는 접근은 냉전이 한창 진행중이던 1970년대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방법론이다. 이 접근방법은 중국·소련·미국을 세계 3대 강대국으로 보고 이 세 강대국들이 전략적 삼각관계 안에서의 이해관계 변화를 중국대외정책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한다⁴⁾. 그런데 이 접근법은 냉전시기, 중소분쟁 상황에서 ‘연미반소(聯美反蘇)와 같은 중국의 외교적 행보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다각화된 국제질서 안에서는 한계를 보여서 냉전 이후 중국대외정책 연구방법론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Dittmer 1981; Kim 1987; Lieberthal 1978; Segal 1982; Stuart 1981)⁵⁾. 실제로 최근 김용신의 논문(2019)은 1972년 미중 간의 화해를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란 틀 속에서 ‘소련 위협원인론’에 대한 미중 간의 공동 대응으로 설명한 기존의 관점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 반박하고 있다⁶⁾.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거시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점은 중국의 경우, 체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한다

-
- 4) 전략적 삼각관계는 과거 중국의 파워가 미소 양국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엄밀한 구조적 현실주의의 논리에서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필자가 이를 거시적 접근방법의 일부로 분류한 것은 전략적 삼각관계라는 용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제환경과 체제적 요인에서 탄생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전략적 삼각관계를 ‘거시적’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힌다.
 - 5) 전략적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중국대외정책을 연구한 주요 학자로는 김일평, Gerald Segal, Douglas T. Stuart, Lowell Dittmer, Kenneth G. Lieberthal 등이 있다.
 - 6) 저자는 1972년 2월 28일 발표된 상해공동성명(上海公報)으로 대표되는 중미 화해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소련의 위협(Soviet Threat)”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 양국이 협력한 세력균형의 예시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탈냉전 이후 공산권 국가 문서에 부분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중미 화해 당시 미국의 주요 외교문서들이 비밀해제(declassif)되면서, 이와 같은 전략적 삼각관계라는 틀에 착안한 냉전시기의 전통주의적 해석은 이미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탈냉전 이후 공개된 다국 사료(multi-national archives)들을 교차 분석하는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을 통해 1969년 중소 무력 충돌은 소련이 아닌 중국에 의해 계획되었고, 이후의 미중 양국 간 회담에서도 중국보다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을 강조하였음을 역사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고 해도 그것을 하나의 일괄적인 체제적 차원으로 단순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중국은 여전히 책임대국과 개발도상국가라는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강대국으로의 아시아적 차원과 국제 체제적 차원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단일화된 체제 수준을 중국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중국의 국내정치적 특수성과 경제적 요인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중국의 국력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 중국이 기존의 국제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체제의 구축을 시도하려는 외교적 행위 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2. 미시적 접근방법

중국 대외정책 연구에서 미시적 접근방법은 중국 국내정치적 특수성과 중국 지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국의 국내정치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은 다시 두 가지 층차로 관념적 층차와 구조적 층차로 나누어진다. 관념적 층차에 대한 연구로는 중국 내 학자들에 의해 발전해 온 역사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접근방식이 있다. 중국 국내정치의 구조적 층차는 중국의 정책결정체제와 파벌정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 정책결정자 개인차원에서의 분석방법까지를 포괄하여 본문에서는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역사·문화적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역사와 철학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역사문화적 전통이 중국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이다. 과거 관념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중국외교가 유가와 법가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적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철학적 바탕이 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외교 안에서 잘 나타난다고 설명되었다(楚樹龍·金威 2008). 그런데 최근 이 연구방법론은 중국만의 독특하고 독자적인 차별화된 외교 이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 국제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 연구는 칭화

대와 북정대를 두 축으로 하여 각각 옌취통(Yanxuetong)과 예쯔청(Yezicheng)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Yan 2001; 2006; 2009; 2011; 2016; 卍自成 2001). 중국의 전통문화 안에서 현대 외교행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서양 학자들을 통해서 학제간 연구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중국대외정책을 분석한 연구(Fairbank 1968; Feuerwerker 1972; Mancall 1963; Rossabi 1983)중 국내에서 잘 소개된 책으로는 존스톤(Johnston 1999)의 중국 전략문화 연구가 있다. 그는 무경칠서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고전 속에서의 인식과 실제 명나라 시기의 주변국 침공을 예시로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라는 개념을 중국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로 규정하고 중국의 역사적 문화가 군사력 사용이라는 가장 ‘현실주의적’ 사안에 미치는 결정력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국제체제의 압력이 국가의 외교적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라는 기존 왈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중국의 경우 국내정치적 요인이나 전통, 역사적 경험, 문화 등이 국가 정책적 선택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연구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⁷⁾.

현대 중국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관념적 차원으로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접근방법은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등의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에서 중국대외정책과 행위를 분석한다. 이 연구방법은 건국 초기부터 60년대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행위인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근거한 중간지대론, 제3세계론 등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 중국대외정책연구에서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서구의 논리와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국대외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7) 존스톤 이후 중국대외정책과정에서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로 중국의 관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의 외교적 행동을 분석한 의미 있는 저서가 출간되었다. 관련저서로는 권위주의적 세계질서로 대표되는 차이나 질서(China Order)를 고대 중국 제국에서 중국인들이 상상한 국제관계의 이상향이자 정치적 이념으로 전제하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이를 재조명하려는 Wang, Fei-Ling. 2017. *The China Order: Centralia, World Empire, and the Nature of Chinese Power*. SUNY Press.이 있다.

연구에 접목시켰다는 데 있다. 물론 탈냉전 이후, ‘화이부동(和而不同: 서로 상이한 속에서 화합)’, 조화세계(和諧世界) 등의 유교적 이념은 여전히 역사 문화적 접근이 중국대외정책 해석에 필요한 방식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현대 중국의 제3세계외교, 반제국주의 외교 등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여전히 설득력 있는 해석요건을 갖춘 연구방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거친 현대 중국의 대외정책은 너무도 복잡한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역사나 이데올로기적 접근만으로 단순히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이데올로기적인 색채가 있을 수 있으며, 전통문화와 역사적인 경험 역시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에 의해 시대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Christensen 1999; Deng 2004; Sutter. 2005) 등이 있다.⁸⁾

내부 구조적 차원에서 중국 권력 ‘파벌’간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을 중국대외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연구방법은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파벌정치 접근방법은 중국대외정책을 중국 내부에서 전개되는 권력투쟁의 결과로 인식한다. 이 접근방법은 일반 대외정책결정 모델로 익히 알려진 ‘관료정치모델’(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과 유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Barry 1978), ‘파벌주의 모델(Factionalism Model)’이라는 하나의 분석틀을 가질만큼 중국대외정책연구의 중요한 학파를 형성하고 있다(양갑용 2012; 주장환 2012a; 2012b; 2014; 최지영 2017; Dittmer 1995; 1981). 이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중국의 특수성을 ‘파벌정치’란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국 대외정책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파벌투쟁이 대외정책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세력은 처음부터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파벌정치와 같은 내부의 구조적 접근과 더불어, 개혁개

8)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는 중국 전통문화나 관념, 문화적 접근보다 미국의 중국정책, 중국과 아시아 이웃국가들의 관계, 또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가지는 위치와 위상에 따른 괴리와 이에 대한 불만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방이후 중국 사회조직이 제도화과정(institutionalization)을 겪음에 따라 정책결정기구(apparatus)와 기제(mechanism)연구가 강화되었다(Hamrin 1995; Li 2002; Ning 2000; Shambaugh 2002). 이와 같은 연구 중국 외사영도소조와 같은 중요한 대외정책결정기구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되었다.

정책결정자 개인적 차원의 접근방법은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외정책결정자 개인의 세계관, 가치관, 이념 등이 중국대외정책을 결정의 핵심요소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마오쩌둥(Mao Zedong) 시기의 경우, 모든 정책결정에서 마오 개인의 역할이 매우 절대적이었다는 것에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단 마오 시기 뿐 아니라 이 방법은 덩샤오핑(Deng Xiaoping) 시기의 중국대외정책을 설명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설명 방법이었다(Barnett 1985). 일반 대외정책 분석에 유의미한 틀을 제시한 제임스 로젠로우(James. N. Roseneau)의 “pre-theory”를 살펴보아도 중국의 경우, 대외정책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우선순위는 개인요소임을 알 수 있다(Roseneau 1974)⁹⁾.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중국의 정치과정에서 정책결정자 개인을 중국대외정책의 핵심으

9) 이 연구의 최대공헌은 대외정책연구의 이론화에 있다. 동시에 그는 대외정책결정과정중의 수많은 관련요소들과 연계하여 정책을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국내외 정책 간의 관계를 종합 분석하는 5개의 핵심변수를 제시했다. 개인변수(individual variable), 역할변수(role variable), 정부변수(governmental variable), 사회변수(social variable), 체제 변수(system variable)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첫째, 개인변수는 국가에서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특정 성격, 가치관, 사상체계, 경험과 인지 등을 의미한다. 둘째, 역할변수는 개인요소와 무관한 정책결정자의 지위와 역할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변수는 정책결정자 개인이 결정한 정책이 제한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일종의 정부조직체제를 말한다. 넷째, 사회변수는 사회여론의 추세, 산업화의 정도, 민족단결 등의 대외정책의 비정부요인을 의미한다. 다섯째, 체제변수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상황, 행위, 이데올로기상의 서로 다른 견해 등을 포함한다. 그는 또한 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다섯가지의 변수의 상대적 잠재성(relative potency), 국가영토의 크기(size), 경제발전의 정도(state of the economy)와 정치체제의 특징(state of the polity)등도 주요변수로 고려하였다. 그는 5가지 변수와 3가지의 분석기준에 기초하여, 8개의 국가를 예시로 지시하고 대외정책결정과정을 분석했다.

로 해석하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지만(Gittings 1974; Kim 1977; Oksenberg 1976; Pye 1976)¹⁰⁾ 지나치게 정책결정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함으로써 복잡한 대외정책의 다양한 요소를 단순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3. 미시-거시 차원의 연계접근

이와 같이 중국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각각이 가진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미시-거시 모든 차원에서 ‘연계적 접근방법’이 제시되었다(Putnam 1993). 거시적 연계접근은 ‘국제적인 제약요인’과 ‘국내적인 결정요인’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중국이 마주한 국제적 상황과 중국지도부 내부의 상황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중국의 자본주의 국제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대외정책으로의 변환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 되었다(Finger 1980; Kim 1989; Ritzer 1990; Rosenau 1969; Whiting 1992)¹¹⁾. 이 접근방법을 실제 중국대외정책연구에 적용한 중국학자로는 자오첸성(趙全勝, 2001)이 있다. 그가 규정한 거시적 차원은 국제적 제약요인과 국내적 결정요인을 포괄하며, 미시적 수준은 정책결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오첸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연계접근은 기본적으로 미시와 거시라는 단일 층차에서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접근이다. 그런데 어느 한 수준에서 거시적인 것이 다른 수준에서는 미시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Alexander 1987)¹²⁾ 이러한 상대적 개념의 정의는 근본적인 모호함을 가진다.

10) 이러한 접근방법을 시도한 대표 학자들로는 Samuel Kim, Michel Oksenberg, Lucian Pye, John Gittings 등이 있다.

11) 대표적인 학자로는 James Rosenau, Robert Putnam, Samuel Kim, Thomas Finger, Harry Harding, Allen Whiting, George Ritzer, Jeffrey Alexander, Richard Munch, Neil Smelser, Bernhard Giesen 등이 있다.

12) 이러한 측면에서 알렉산더(Jeffrey Alexander)는 거시적 결정주의(macro-determinism)나 미시적 결정주의(micro-determinism)를 거부하고 거시수준이나 미시수준의 일방적 의존을 반대한다.

접근방법에 따른 중국 대외정책 방법론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미시든 거시든, 어떤 차원이든지 모두 “개별 행위자와 구조”라는 두 층차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정책을 통해 발현되는 행위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작용 혹은 충돌의 결과”로 이해해야 하며, 단일 수준의 분석만으로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긴 어렵다. 실제로 시대별로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1970년대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역할과 위상이 국제사회에 증가함에 따라 연구방법론에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다층적 연구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III.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본문은 앞서 중국 대외정책의 연구방법론을 접근방법과 시대별로 정리함으로써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이 1) 구조와 행위자에 대한 연계접근과 2) 다양성과 복잡성의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기존 연구방법론의 연구흐름 속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s Dynamics)’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1. 구조와 행위에 대한 연계접근의 필요성

구조 중심적인 연구방법론에서 정책결정자(개별 행위자)의 ‘차이’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이 개입하여’ 라고 할 때, 여기서 반대를 표명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인간(개별 행위자)’이다. 그런데 중국을 집합적인 하나의 행위체로 인식할 경우에는 그것이 특정 개별 행위자의 선

13) 이와 관련해 필자가 정리한 내용은 본 논문의 부록(appendix)에 첨부한 <접근방법에 따라 분류한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 비교표>와 <시대별로 분류한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 비교표>를 참조할 것.

택과 결정 또는 그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반영임에도 종종 이 부분은 간과되고 만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적 접근이 한계가 있으며, 개인 층차의 심리 또는 인지적 연구방법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다. “구조와 구조적 속성은 원천적으로 인간의 행위에서 발생하며, 또 개인의 행위도 구조에 상호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Wight 2006)”하기 때문에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와 행위자 간의 ‘관계성’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학문이 바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s Dynamics)이다.

2. 구조와 행위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s Dynamics)는 이미 발생한 결과적 ‘행태(행위)’를 구조적 연계 작용 안에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이 연구방법은 행태주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여 행위와 구조 간의 밀접한 관계, 그 행태의 변화를 만드는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구조주의 연구’의 일종으로 불리운다¹⁴⁾.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정책결정자의 행위의 원인을 특정사건이나 수량적 통계 정보로 보지 않고 시스템의 구조로 본다. 따라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에

14) 행태주의는 시스템의 형태를 예측한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한다. 행태주의에서는 환자가 언제 통증을 느끼는지에 대한 예측에서 만족을 하지만 구조주의는 환자의 어떤 부분이 문제를 일으켜 통증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만족한다. 시스템사 고에서 말하는 구조는 관계를 의미하지 요소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왜냐하면 요소는 시스템의 구조를 구성할 뿐 다른 큰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탄소를 구성하는 요소와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요소는 같다. 단지 요소를 구성하는 관계가 다를 뿐이다. 모래는 수많은 요소로 구성되지만 이러한 요소 간에는 어떤 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모래의 구성관계를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고층 건축물을 형성할 수 있을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지, 광섬유를 만들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군인들의 합인 군대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들 관계 어떤 관계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체로 모여 있다고 해도 그들은 오합지졸일 뿐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시스템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은 요소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

서 강조하는 개념은 행위 내부의 ‘동태적 구조’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와 행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 작용’한다는 전제에서는 연구방식이 행태주의에서 익숙한 ‘다중회귀방정식’ 모델이 아니라 ‘상호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상호순환적 인과관계가 된다. 다중회귀 분석방법론의 관점에서 한중수교라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적’이었던 중국이 급작스럽게 1992년 수교한 대외정책의 원인은 하나의 핵심변수에 집중될 것이다. 실제로 국내학계에서 연구된 한중수교의 주요원인은 중국 정부의 경제적 이익에 집중한 연구(이성일 2011)¹⁵⁾와 북중관계 변화에 중점을 둔 연구(이동률 2016)¹⁶⁾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요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외교적 결정의 원인은 그 원인변수 간에도 상호 영향이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결정도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과 같은 하나의 단일 변수에만 국한될 수 없음에도 행태주의적 접근방식은 어떤 현상이 발생한 핵심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나머지 관련변수를 모두 통제한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행태주의적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근거하여 한중수교를 분석하게 되면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 후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차원의 이익은 매우 명백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은 전혀 없다고 전제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무역량은 증가하였지만 최대 9억 달러에 육박했던 북중 교역량은 1999년에는 4억 달러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북중 무역량은 1990년대 초반의 최대 40%를 상회하는 것에서 1990년대 말에는 20%를 밑도는 것으로 거의 절반 이상 하락했다(이기현 2017). 중국의 경제적 이익이 한

15) 이 논문은 한중수교에 대한 중국정부의 결정 요인을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략적 차원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중요한 국익이며 경제적 차원에서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의 확대가 필요했고 정치적 차원에서 한중수교는 한국과 중화민국(이하 ‘대만’으로 칭함) 외교관계의 단절로 중국의 통일정책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16) 이 연구는 당시의 국제체제와 한반도의 상황, 한중 양국의 국내정치상황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은 ‘북한요인’을 더 이상 수교의 절대적 장애로 인식되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중수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설명은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에서 중국이 받을 손실에 대한 전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북한요인’이 더 이상 수교의 절대적 장애로 인식되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방식도 한중수교 이후의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배제한 불완전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단일 변수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정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방식은 엄밀히 말해 어떤 현상의 원인에 대해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학에서도 이와 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인과관계의 해석은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Jeon 2015)¹⁷⁾.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행위내면의 시스템구조 (Dynamic pattern of behavior)를 함께 사유하는 이 방식은 중국 고대<주역>의 사상과 중의학의 침술과 매우 비슷하다. 행위와 구조에 대한 연계접근 방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외정책학 연구에도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 연구방법이 중국 대외정책방법론 방법론 연구에 던지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시스템 다이내믹스학의 핵심개념인 ‘시스템 사고’에 있다. 이 개념은 정책학과 국제관계학의 핵심 전제인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한다.

3. 정책결정자의 합리성에 대한 재탐색의 필요성

국제관계에서의 최상은 반드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이며 국익의 극대화는 곧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도달한 ‘최적(optimal)’의 결과인 합리적 결정이다 (Elster 2004; Janice 2012).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개별 행위자의

17)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계량 통계학이 정치학에서 가지는 강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그 한계를 우려한다. 필자는 본문에서 통계학을 주류적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대 정치학계에서 회귀분석을 마치 인과관계 분석의 필수조건으로 남용하는 현상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분석수준이든 국가적 분석수준이든 정책학적 접근의 기본 전제가 되는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다. 사실 합리성(rationality)은 정책결정 연구에서 매우 보편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을 중국 대외정책에 도입한 대표적인 학자는 베네딕트 호위디스(Benedikt Höwedes), 해리하딩(Harry Harding), 도크 바넷(A. Doak Barnett)이다. 합리성을 전제로 한 중국정책 연구(Lampton 2019)¹⁸⁾에서 대외정책이란, “이익 최대화” 원칙이라는 명확한 대외정책의 목표에 근거하여 최대의 대가로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는 선택과정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론적 가설을 전제한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통일체로, “정부는 인격화된 하나의 주체로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상정된다. 이들에게 한 국가의 대외정책이란 “통일된 국가정부가 채택한 목표가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국가내부는 복잡한 정치시스템을 가지며, 다양한 요소는 국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정책결정 중 정보의 완전무결성과 정보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정책결정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선택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매우 적지 않은 불완전한 정보들이 존재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게 말하기 위해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고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한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정책결정자의 행위 방식에 대해 평가는 객관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시간의 긴박성, 정책결정 환경의 압력은 종종 이와 같은 상황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정책결정자가 반드시 국가이익만을 정책 목표로 하지 않을 상황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렇게 만약 모든 국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전제한다

18) 데이비드 램턴은 관료제도 하에서 협상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합리성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통해, 균등분배에 도달할 수 있으며,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 같은 하나의 신념은 있다고 주장한다. 도크 바넷은 중국 대외경제정책결정과정 중의 지도자의 합리성 인식과 대응방식은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의 실행에 관건요소라고 말했다.

면, 현실에서 종종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비합리적” 외교행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한국전쟁시기 중국의 파병결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야말로 ‘비합리적 정책결정’의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되고 있다. ‘합리성’이라는 개념의 한계는 이미 정책학 내에서도 허버트 사이몬 (Herbert A. Simon) 과 아론 윌답스키 (Aaron Wildavsky) 등과 같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통해 비판되어져 왔다 (Simon 1976; 1965). 대외정책학에서는 홀스티 (Ole R. Holsti) 등의 학자가 합리성 인지의 한계(cognitive constraints on rationality)를 제시했으며, Margaret G. Hermann, Ole R. Holsti, Robert Jervis, Alexander George, Yaacov Y. I. Vertzberger, Axelod, Rose McDermott 등을 통해 외교학의 심리인지연구로 더욱 발전했다. 심리인지모델의 연구자들은 정책결정자의 “권력, 이익과 같은 핵심개념에 대한 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과 이익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李志永 2011). 인지분석은 미시대외정책결정과정 분석에서 오퍼레이셔널 코드 (operational code), 인지도, 이미지 등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전개되었으며¹⁹⁾, 그 중에서도 액셀로드가 1976년 출판한 『정책결정의 구조』라는 책은 앞서 시스템 다이내믹스학이 강조하는 ‘순환적 인과관계’ 즉, 피드백루프 (feedback loop) 의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합리성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합리성이란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 합리성의 가
정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책연구에서는 합리성

19) George에 따르면, 다른 개인의 신념을 결정하는 방법은 주로 10 가지의 다른 질문, 즉 5 개의 "철학적 신념"과 5 개의 "기능적 신념"을 나누어진다. 그는 이 10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함으로써 분석가는 연구 대상의 핵심 신념을 파악하여 opcode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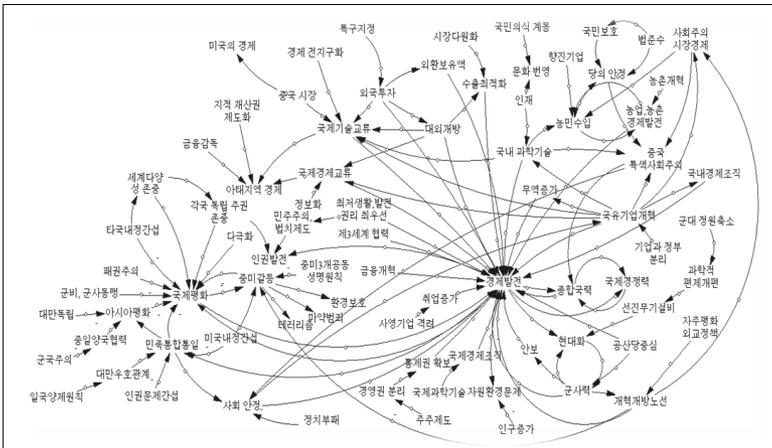
의 절대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관련 있는 변수를 연구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주장한다. 정보, 시간, 비용 등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정책결정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합리성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시스템의 구조를 더욱 강조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합리적 사고’라는 용어보다 ‘시스템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김동환은 주식시장의 예를 통해, 왜 합리성이라는 가정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에게 절대적이지 않은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세 사람- 1) 복잡한 투자 알고리즘을 공부한 후 투자한 사람, 2) 단순하게 투자한 사람, 3) 다른 사람의 투자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똑같이 투자한 사람-이 똑같이 투자에 성공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을까? 복잡한 투자방정식을 알고 판단하여 최대 이익을 얻은 투자자와 단순히 다른 사람의 투자방식을 모방하여 손쉽게 이익을 얻은 투자자의 이윤이 같다면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과연, 인간의 합리성이 정책연구의 유효한 판단기준이 되는지를 다시 질문한다. 결론은 합리성이란 결과의 도출 이전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결정과정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성의 존재유무를 판단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합리성과 상관있는 변수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합리성이 가지는 절대적 지위를 부정하고 시스템의 구조성을 강조하는 사고를 “시스템사고(system thinking)”라고 하며 이것은 “합리성 사고”의 절대적 지위를 강조하지 않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시스템사고학자들(Forrester 1993; Recharadson 1991; Richmond 1993; Senge and Sterman 1992)이 주장하는 시스템사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사고는 문제요인들의 순환적 인과관계 (circular causality) 와 피드백루프 (feedback loop) 를 강조하는 행위과 구조의 연계접근을 강조한다.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의 구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모든 인과관계도 결국 순환적

인 관계로 귀결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자들은 이를 피드백루프에 의한 순환적 과정 (circular process as feedback loop) 이라 부른다. 둘째, 시스템사고는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적 합리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IV. 실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방법론 적용

중국 대외정책연구방법론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연구방법론을 실제 활용한 사례로는 1989년 이후 이중적 중미관계를 장저민과 클린턴의 인지/인과지도 분석이 있다(정다훈 2012). 이 논문은 기존의 중미관계를 설명하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의 설명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중국 장저민 주석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문 속의 정책언어 간의 인과관계를 추출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활용하는 Vensim PLE프로그램으로 인지/인과지도도를 도출하고 중미관계의 협력 변수를 찾아낸 것이다.

〈표1〉 장저민의 인지지도(1998)



위의 인지지도<표1>와 피드백구조를 담은 인과지도<표2>는 장저민 집권시기 동안 장저민이 발표한 연설과 담화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고 독창적인 내용을 선별하여 담은 장저민 문선 203편의 연설문 모음집에서 각각의 인과성을 가진 변수들을 도출하여 만든 것이다. <표3>은 클린턴 집권시기 동안 발표한 연설문 전문 약 200편을 분석하여 만든 인지지도이다. 인지지도 중에서 시스템사고를 판별하는 핵심이 되는 ‘피드백 구조’를 보이는 부분을 다시 확대한 지도를 인과지도라고 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에서 인지지도 분석은 총 다섯 단계의 분류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인지지도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정책의 목적변수와 수단 변수 인식이다.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정책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변수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변수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둘째, 시스템 사고의 틀인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도자는 어떤 변수를 통제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어떤 변수를 통제 불능의 외부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도자가 통제가능하다고 보는 변수는 그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많은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통제 불능 변수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피드백 루프의 확인이다. 이것은 지도자가 시스템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도자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양의 피드백 루프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직접적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양의 피드백 루프는 선순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지도자가 음의 피드백 루프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상정할 경우 이 두 변수들은 직접적인 정책적 영향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균형의 상태를 이루게 되므로 지도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각 변수 전체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군사 등의 주요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 간의 연결고리를 지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설문의 내용분석만으로는 찾아지지 않지만

인지지도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으로 이를 통해 정치와 경제 간, 외교와 경제 간의 중요하게 개입될 수단 변수를 찾아낼 수 있다. 다섯째, 지도자가 목적 변수로 생각하는 주된 변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계를 찾아보는 것이다. 정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적 목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의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역시 연설문의 단순 내용분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으로 정책분석에서 인지지도 분석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기존의 중미관계를 설명하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의 설명력 한계를 보완하고 중-미간의 협력과 갈등을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점인 1989년부터 2001년 9.11 테러 전에 해당되는 시기의 지도자, 중국의 장저민 주석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언어 분석을 통해 ‘개인’ 수준에서 양국 간의 갈등과 협력의 요소라는 ‘구조’적 틀을 보여줄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필자는 1998년 중미 관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클린턴의 중국경제성장이라는 인식과 중미 간 과학협력의 강조, 외부 세계에 대한 군사제재에 반대하는 클린턴의 정책기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저민은 재임시기 전체를 통틀어 자국의 경제성장과 국제기술교류를 매우 중요한 목적변수로 인식하고 있는데 클린턴은 바로 이러 한 장저민의 정책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클린턴은 국유시장의 민영화가 중국 WTO가입의 선결조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의 장저민은 국유기업개혁을 통해 폭넓은 국내 경제개혁을 실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2001년 미국의 반대없이 WTO에 가입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중미 간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두 지도자 간의 인지지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먼저, 인권과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수단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장저민은 인권 발전은 최저생활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성장이 먼저 주어진 다음의 일이며 국제 평화와 중미 간 협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나라의 독립주권이 존중되어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민

족통일과 통합은 선결되어야할 조건이며 이를 위한 어떤 외부 내정간섭에도 일관성 있게 반대를 견지해 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시아와 세계의 금융안정, 미일 동맹, 일본 경제회복 등이 중요하며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의 자유권이 먼저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의 갈등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한 양국 간 과학협력이라는 동일한 두 지도자의 수단변수도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 인류의 문제인 환경문제도 중미 간 과학 기술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 클린턴의 인식과 달리 장쩌민은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 내의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인식구조를 보여 미래에 양국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V. 결론과 제언

“시스템사고”라는 개념은 20세기 초 70년대 서양 사회과학의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제시하며 나타난 개념이다. 이 개념 이전 다수의 사회과학연구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두 개만으로 변수를 통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려고 한 나머지 변수와 변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고대 주역사상은 이미 변수 간의 상호관계와 영향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강조하는 개념의 바탕이 이미 중국 고대 주역사상 속에는 내재하고 있던 것이다. 주역은 이 세상을 생성과 변화를 반복하는 변동의 세계로 보지 존재의 세계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 역시 존재로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동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은 시스템 사고의 개념도출과 매우 유사하다. 고대에서 근대까지 서양의 연구가 단선사유구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사유방식은

고대로부터 이미 순환적 피드백구조(시스템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스템사고는 수많은 인과관계를 가진 변수들 간의 조합을 통해 인과도를 도출하고 그 안에서 피드백구조를 찾아내게 된다. 인과도 안에 피드백구조의 유무는 정책결정자의 “시스템사고”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중국학자 왕판은 『새로운 방향: 복잡시스템사고와 중국대외정책규칙』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복잡 시스템사고를 중국 외교전략 연구에 활용하려고 노력했으며 이것은 중국대외정책 연구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王帆 2014).

세계화가 심화되고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상호합작의 필요성과 국가이익 간의 딜레마적 상황은 매일 각국이 신중하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외부세계의 중국에 대한 위협론과 경제 붕괴론 등의 부정적 견해를 극복하고 부패와 빈부격차 등 국내 사회문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책결정자가 처리해야 할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들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 현대 연구자들도 복잡성, 조직성, 전체성이라는 새로운 연구과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정책연구 중에서 시스템사고분석을 이용하여 중국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관계학의 방법론적 차원과 중국대외정책 연구방법론을 살펴보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시론적으로 탐색해보았다. 지속적으로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대에서 시스템사고는 매우 유용한 정책분석도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방법을 활용한 중국 대외정책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도훈·문태훈·김동환. 1994. 『시스템다이내믹스』. 서울: 대영문화사.
- 김동환. 2004. 『시스템사고』. 서울: 선학사.
- 김옥준. 2010. “중국대외정책연구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 29집 1호, 89-108.
- 김용신. 2019. “1972년 중미(中美) 화해에 대한 “소련위협원인론”의 재고찰: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 하의 중국 외교.” 『중소연구』 42권 4호, 7-51.
- 박병석. 2018. “21세기 초 중국 신좌파의 중국정치모델 담론과 중화성(中華性).”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집 2호. 199-236.
- 양갑용. 2012. “중국의 최고 정치엘리트 변화 연구: 18차 당대회 전망과 함의.” 『중국학연구』 59권, 127-157.
- 은용수. 2013. “심리/인지적 연구와 국제관계학.” 『국제정치논총』 53집 4호, 79-111.
- 이정희. 2011. “중국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6집 2호. 77-108.
- 이기현·전병곤·이석·박동훈. 2016.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통일연구원(KINU) 연구총서.
- 이동률. 2018. “한중 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4권3호. 151-178.
- 이성일. 2011.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 의의에 관한 재고찰-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中國學』 40집, 531-566.
- 이정구. 2013. “중국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31권, 43-58.
- 자오첸성(趙全勝) 저. 김태완 역. 2001. 『중국외교정책: 거시-미시 연계접근분석』. 서울: 오름.
- 장윤미. 2011. “중국 모델에 관한 담론 연구.” 『현대중국연구』 3권 1호, 75-116
- 전성홍. 2008. “중국 모델의 ‘부상’: 배경, 특징 및 의미.” 『중소연구』 31집 4호. 15-54.
- 정다훈. 2012. “1989년 이후 이중적 중미관계: 장저민과 클린턴의 인지지도 분석을

- 중심으로.”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3권 3호, 47-66.
- 정재호 · 안치영 · 박만준 · 장윤미 · 차창훈 · 박병광. 2005.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의 재 고찰: 자료, 방법론 및 담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집 2호, 103-129.
- 조동준. 2007. “대외정책연구 현황과 평가.” 『국제정치논총』 46집, 83-195.
- 주장환. 2012. “2012 년 중국 권력 투쟁의 전개와 그 특징.” 『대한정치학회보』 20권 2호, 243-262.
- 주장환. 2012. “중국 파벌정치의 변화: ‘동기’와 ‘동학’의 측면에서.” 『아세아연구』 55권 1호. 231-263.
- 주장환. 2014. “중국식 과두 체제의 변화?: 엘리트 정치 측면에서의 시진핑 집권 초기 평가.” 『유라시아연구』 11권 2호, 123-138.
- 주장환. 2012. “중국 세대별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1 세대에서 제5 세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권 1호, 191-215.
- 주장환. 2012. “2012 년 중국 권력 투쟁의 전개와 그 특징.” 『대한정치학회보』 20권 2호, 243-262.
- 차창훈. 2003. “중국대외정책 연구에 대한 이론적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 243-265.
- 최지영. 2017.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와 파벌 연구: 시진핑 시기 변화와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82권, 5-27.
- Albert Feuerwerker. 1972. “Chinese History and Foreign Relations of Contemporary China.”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02(1): 1-14.
- Allen, Whiting. 1960. *China Cross the Yalu: The Decision to the Korean War*.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Allen Whiting. 1992. “Foreign Policy of Communist China.” In R. C. Macrids, eds. *Foreign Policy in World Politics, 8th ed*, 222-267.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Barlas, Yaman. 2007. “System dynamics: systemic feedback modeling for policy

- analysis.” *System* 1(59). Xu, Z. X., et al. “Sustainability analysis for Yellow River water resources using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Water Resources Management* 16(3): 239-261.
- Barry B Hughes. 1978. *The Domestic Context of American Foreign Policy*. San Francisco: W.H.Freeman & Company.
- Carol Lee Hamrin and Suisheng Zhao(eds). 1995. *Decision-making in Deng’s China: Perspectives from Insiders*. Armonk: M.E.Sharpe.
- Colin Wight, Agents. 2006.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nningham-Cross, Linsay. 2012. “Using the past to (re) write the future: Yan Xuetong, pre-Qin thought and China’s rise to power.” *China Information* 26(2): 219-233.
- Christensen, Thomas J., et al. 1999. *In the eyes of the dragon: China views the world*.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Deng, Yong, and Fei-Ling Wang. 2004. *China rising: Power and motivation in Chinese foreign policy*.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Douglas T. Stuart. 1981. *China Factor*. N. J.: Prectice Hall.
- Doak A. Barnett. 1985. *The Making of Foreign Policy in China: Structure and Process*. London: Westview Press.
- Edward Friedman. 1979. “On Maoist Conceptualizations of the Capitalisist World Systems.” *China Quarterly* 80: 806-837.
- George Ritzer. 1990. “Micro-Macro Linkage in Sociological Theory: Applying a Metatheoretical Tool.” In George Ritzer, eds. *Frontiers of Social Theory*, p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erald Segal. 1982. *The Great Power Triangle*. London: MacMillan Press.
- He Li. 2002. “The Role of Think Tanks in Chinese Foreign Policy.” *Problems of Post-Communism*. 49, No.2.(March/Apri). 33-43
- Ilpyong Kim. 1987. *The Strategic Triangle: China,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 Union*. New York: Paragon House.
- John K. Fairbank. 1968. "China's Foreign Policy in Historical Perspective." eds. In Fairbank, J. K., and Ch'en, T. T, eds. *The Chinese World Order*, (p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nathan D, Pollack. 1984. "China in the Evolving International System." Iin Norton Ginsburg, eds. *China: The '80s Era*, 353-374. Boulder, Colo.: Weatview Press.
- Johnston, Alastair Iain. 1998.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mes N. Roseneau, 1974. "Comparing Foreign Policy: Why, What, How." in James N. Roseneau, eds. *Comparing Foreign policies: Theories Finding and Methods*, page. New York:Halsted Press.
- John Gittings. 1974. *The World and China, 1922-1972*. New York: Harper and Row.
- James Rosenau. 1969. *Linkage Politics: Essays on the Converge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ystem*. New York: The Free Press.
- Jeffrey Alexander. 1987. "Action and Its Environments." In Jeffrey Alexander, eds. *The Micro-Macro Link*, p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on, Jihye. 2015.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statistical modeling of complex social phenomenon: Focusing on SEM, path analysis, or multiple regression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Engineering* 9(5): 1634-1642.
- Jon Elster. 2004. "Emotions and Rationality." In Antony S. R. Manstead, Nico Frijda, and Agnetta Fischer, eds. *Feelings and Emotions: The Amsterdam Symposium, 30-4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ice Gross Stein. 2012.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rational, psychological, and neurological models." In Steve Smith, Amelia Hadfield, and Tim Dunne, eds. *Foreign Policy: Theories, Actors, Cases, Second Edition*, 10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nneth G. Lieberthal. 1978. *Sino-Soviet Conflict in the 1970's: Its Evolution and*

- Implications for the Strategic Triangle*. California: Rand Corporation.
- Lowell Dittmer.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4): 485-515.
- Lowell Dittmer and Yu-Shan Wu. 1995. "The Modernization of Factionalism in Chinese Politics." *World Politic* 47(4): 467-494.
- Lowell Dittmer.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 485-515.
- Lu Ning. 2000. *The Dynamics of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in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 Lucian W. Pye. 1976. "Mao Tse-tung's Leadership Styl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1(2): 219-235.
- Lampton, David M. 2019. "Chinese politics: the bargaining treadmill." *Changes And Continuities In Chinese Communism*. Routledge, 186-210.
- Michael Yahuda. 1978. *China's Role in World Affairs*. New York: St. Martin's Press.
- Melvin Gurtov & Byong-Moo Hwang. 1980.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Michael Ng-Quinn, John Gittings. 1974. *The World and China, 1922-1972*. New York: Harper&Row.
- Mark Mancall. 1963. "The persistence of tradition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49(1): 14-26.
- Morris Rossabi.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chel Oksenberg. 1976. "Mao's Policy Commitments, 1921-1976." *Problems of Communism* 25(6): 1-26.
- Morecroft, John DW. 1983. "System dynamics: Portraying bounded rationality." *Omega* 11(2): 131-142.
- Thomas W. Robinson. 1972. "The View from Peking: China's Policies Toward the

-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Japan.” *Pacific Affairs* 45(3): 333-355.
- Peter Van Ness. 1970. *Revolution and Chinese Foreign Poli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ltiel, Jeremy T. 2011. “Constructing global order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Yan Xuetong and the Pre-Qin response to international anarchy.”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4(4): 375-403.
- Robert Putnam. 1998.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ow-Level Games.” In Evans Peter, Harold Jacobson and Robert Putnam, eds. *Double-Edged Diplomacy: International Bargaining and Domestic Politics*, p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bert Putnam. 1993.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ow-Level Games.” In Evans Peter, Harold Jacobson and Robert Putnam, eds. *Double-Edged Diplomacy: International Bargaining and Domestic Politics*, p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93.
- Samuel Kim. 1989. “New Directions and Old Puzzles in Chinese Foreign Policy” In Samuel Kim, eds. *China and the World: New Directions in Chinese Foreign Relations*, 3-30.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Sutter, Robert G. 2005. *China's rise in Asia: promises and peril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Shambaugh, D. 2002.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ink tanks: evolving structure and process. *The China Quarterly*, 171: 575-596.
- Simon, H.A. 1976. “From Substantive to procedural rationality.” In S.J. Latsis, eds. *Method and Appraisal in Economists*, 130-131.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on, H.A. 1945. “Decision-making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 16-31.
- Thomas Finger. 1980. “Domestic Policy and the Quest for Independence.” In Thomas Finger, eds. *China's Quest for Independence*, page. Boulder, Colo.: Westview

Press.

Wang, Fei-Ling. 2017. *The China Order: Centralia, World Empire, and the Nature of Chinese Power*. NY: SUNY Press.

Xuetong, Yan. 2008. "Xun Zi's thoughts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ir implic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1): 135-165.

Xuetong, Yan. 2006. "The rise of China and its power statu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1: 5-33.

Xuetong, Yan. 2001. "The rise of China in Chinese ey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26): 33-39.

Xuetong, Yan. 2013.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Yan, Xuetong. 2011. "International leadership and norm evolution."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4(3): 233-264.

Yan, Xuetong. 2016. "Political leadership and power redistribution."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9(1): 1-26.

리즈잉(李志永). 2011. "외교정책 분석의 경로와 모드." 『외교评论』, 6호, 108-109.

왕관(王帆). 2014. 『新开局: 复杂系统思维与中国外交战略规划』.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왕밍밍(王鸣鸣). 2003. 「国际政治研究中的外交决策理论」, 载于李慎明, 王逸舟主编.

예쯔칭(叶自成). 2001. "中国春秋战国时期的外交思想流派及其与西方的比较." *世界经济与政治* 12. 24-29.

예쯔칭(叶自成). 2000. "中国实行大国外交战略势在必行: 关于中国外交战略的几点思考." 『世界经济与政治』1호. 5-10.

추수룡·진웨이(楚樹龍·金威). 2008. 『中国外交战略和政策』. 北京: 时事出版社.

| | | |
|------------------|------------------|--------------------|
| 투고일: 2020.10.15. | 심사일: 2020.11.24. | 게재확정일: 2020.12.08. |
|------------------|------------------|--------------------|

〈부록 1〉 접근방법에 따라 분류한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 비교표

|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접근방법) | | | | | |
|--------------------------|-------------------------|--|---|---|---|
| 접근방법 | 핵심주제 | 주요전제 | 방법론적 의미 | 방법론적 한계 | 대표학자 |
| 거시적 접근 (국제체제와 환경요인) | 국익 | 중국은 우방국의 경제/군사력 등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외정책을 결정 |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벗어난 외교연구의 학술성제고 | 객관성과 학술성을 제고시킨 만큼 역설적으로 중국 대외정책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 | Allen Whiting; Donald Zagoria; Thomas W. Robinson; Peter Van Ness; Michael Yahuda; Melvin Gurtov, |
| | 전략적 삼각관계 ²⁰⁾ |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삼각 이해관계 변화를 중국대외정책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 | 냉전시기, 중소분쟁 상황에서 ‘연미반소(聯美反蘇)’와 같은 중국의 외교적 행보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 |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다각화된 국제질서 안에서는 한계 지역 강대국으로의 아시아적 차원과 국제 체제적 차원의 차이를 단일화된 체제수준으로만 적용 | Gerald Segal; Douglas T. Stuart; Lowell Dittmer; Kenneth G. Lieberthal 등 |
| 미시적 접근 (국내정치와 지도자 개인) | 역사·문화 | 중국의 역사 문화적 전통이 중국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 중국외교가 유가와 법가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적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철학적 바탕이 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외교 안에서 잘 나타난다고 설명 | 중국만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외교 이념의 지나친 강조 | John K. Fairbank; Mark Mancall; Albert Feuerwerker; Morris Rossabi 등 |
| | 이데올로기 |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에 영향을 받은 대외정책을 결정 | 건국 초기부터 60년대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행위인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근거한 중간지대론, | 개혁개방을 거친 현대 중국의 대외정책은 너무도 복잡한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역사나 이데올로기적 | Wang, Fei-Ling; Sutter; Robert G.; Christensen; Thomas J. 등 |

| | | | | | |
|-------------|-------------------|---|--|---|--|
| | | | 제3세계론 등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틀을 제공 서구의 논리와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국대외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연구에 접목 | 접근 만으로는 해석적 한계 | |
| | 정책결정 기구 | 개혁개방이후 중국 사회조직이 제도화과정을 겪음에 따라 정책결정기구 연구강화 | 중국 의사영도소조와 같은 중요한 대외정책결정기구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 | 조직 내부의 개인의 역할이나 외부 역학관계가 배제되는 한계 | Lu Ning; Carol Lee Hamrin; Suisheng Zhao 등 |
| | 파벌정치 | 중국 권력 ‘파벌’간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을 중국대외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연구방법 | 중국의 특수성을 ‘파벌정치’란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국 대외정책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 | 파벌투쟁과 대외정책간의 연계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파벌과 무관한 중립적인 세력배제 | Lowell Dittmer; Yu-Shan Wu; Tang Tsou 등 |
| | 정책결정자 개인 |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외정책결정자 개인의 세계관, 가치관, 이념 등이 중국대외정책을 결정의 핵심요소 |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중국 대외정책 연구에 유의미한 틀 제공 | 정책결정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함으로써 복잡한 대외정책의 다양한 요소를 단순화 | Samuel Kim; Michel Oksenberg; Lucian Pye; John Gittings 등 |
| 미시-거시 연계 접근 | 국제적 제약요인+국내적 결정요인 | 중국 대외정책결정에서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은 동시강조 | 중국의 자본주의 국제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대외정책으로의 변환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 제공 미시와 거시라는 단일 층차에서 가지는 단점을 보완 | 어느 한 수준에서 거시적인 것이 다른 수준에서는 미시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 모호함이 있음 | James Rosenau; Robert Putnam; Samuel Kim 등 |

20) 전략적 삼각관계는 과거 중국의 파위가 미소 양극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엄밀한 구조적 현실주의의 논리에서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필자가 이를 거시적 접근방법의 일부로 분류한 것은 전략적 삼각관계라는 용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제환경과 체제적 요인에서 탄생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전략적 삼각관계를 ‘거시적’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힌다.

〈Appendix 2〉 시대별로 분류한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 비교표

|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시대별) | | |
|--------------------|---|---|
| 시대 | 주요 연구경향 | 대표학자 및 연구 |
| 60년대 이전 | 전통 역사학과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대외정책 분석) | John King Fairbank; Mark Mancall; Albert Feuerwerker; Morris Rossabi |
| | 이데올로기 학파 (중국 혁명시대를 주로 설명함) | Benjamin I. Schwartz; Maurice Meisner; Wang, Fei-Ling; Sutter; Robert G., Christensen; Thomas J. |
| | 합리적 행태주의 (국가 안보 중점연구) | Allen Whiting; Donald Zagoria; Thomas W. Robinson; Peter Van Ness; Michael Yahuda; Melvin Gurtov, |
| 60년대 | 파벌 연구학과 (문화대혁명시기 특성반영) | Tang Tsou; Lowell Dittmer; Yu-Shan Wu; |
| 70년대 이후 | 개혁개방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외교 행위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다층적 연구를 보임 | |
| | 개인 중심 | Rozman, <i>“The Chinese Debate About Soviet Socialism, 1978-1985”</i> ; Whitting, <i>“China Eyes Japan”</i> ; Shambough, <i>“Beautiful Imperialist”</i> ; Yong Deng and Feiling Wang eds., <i>“In the Eyes of the Dragon, China Views the World”</i> |
| | 문화 중심 | Chih-yu Shih, <i>“The Spirit of China’s Foreign Policy: A Psychocultural View”</i> ; Johnston, <i>“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i> ; Hunt, <i>“The Genesis of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i> ; Huiyun Feng, <i>“Chinese strategic culture and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 Confucianism, leadership and war”</i> . |
| | 국내사회 정치 | Friedman and SungChull Kim eds., <i>“Regional Cooperation and its Enemies in Northeast Asia”</i> ; Segal ed., <i>“Chines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Reform”</i> ; Swaine and Henry, <i>“China, Domestic Change and Foreign Policy”</i> ; Yong Deng and Feiling Wang, <i>“China Rising: Power and Motivation in Chinese Foreign Policy”</i> ; Johnston and Ross eds., <i>“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china’s Foreign Policy”</i> . |
| 정책결정기구와 과정 | QuanSheng Zhao, <i>“Interpreting Chinese Foreign Policy”</i> ; Ning Lu, <i>“The Dynamics of China’s Foreign Policy”</i> ; Lampton ed., <i>“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i> . | |

Approaches to China's Foreign Policy: A Preliminary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s Methodology

Chung, Da-Hoon | sogang University

China, as a sub-analysis of comparative politics, is now expanding its field of research into a particular subject of Chinese studies. As a result, interest in Chinese foreign policy is also gradually expanding, but discussions on methodologies for Chinese foreign policy remain in limbo in the local academic community, compared with the brisk policy analysis of China's diplomatic behavior. This is because many scholars studying China now have to spend a lot of time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 status quo in accordance with the growing demand for research, so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respond quickly to the discourse on the methodology of China's foreign policy that should be discussed on an academic level. Starting from such a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examines the methodology of the existing Chinese foreign policy, and sets its sights on seeking the direction in which China's foreign policy will move forward in the research of the present changed period framework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examine the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s' as a new method of research in Chinese studies.

Key Words | Chinese Foreign Policy, Methodology, System Dynamics